

담임목사 윤명호 Rev. David M. Yoon
210 Washington Ave. Little Ferry, NJ 07643
교회. 201-229-1561 Fax. 201-2291562



E: info@dongsanchurch.org W: www.dongsanchurch.org Youtube: https://youtube.com/c/njdac

Promise Land

약속의 땅 이야기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은혜로운
성전건축 헌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온라인 생중계

경배찬양 다같이
기도 이정선 권사
성경봉독 잠언 18:4-8
말씀선포 "별식같은
남의 말"
윤명호 목사
찬양 426장
축도 윤명호 목사

새벽 기도회

매일성경QT

이사야 18-22장
월-토 새벽 5시 30분

금요찬양예배 오후8:30

온라인 생중계

찬양 온라인 찬양팀
축도 윤명호 목사

2020년 8월 2일 성찬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Online
3부 오후 1시
EM 오후 1시 30분 / Online

*예배에의 부름 다함께

*사도신경 다같이

확신찬양 79장

중보기도 1부: 최봉호 장로

2부: 정다니엘 장로

특별찬양 김성아 집사

성도의 교제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2:1-10

말씀선포 "이방인의 사도"

윤명호 목사

성찬식 다같이

헌신찬양 518장

*축도 윤명호 목사

모든 예배는 예배당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드러집니다

* 표는 모두 일어서서

담임 목회자 방송 선교

AM 1660

주일설교 - 7am (토) 2:30pm(주일)

5분칼럼 - 2pm (토) 2pm (주일)

Potcast "Dongsan Church" 검색



교회소식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4-7

2020포어 내가 매일 기쁘게

1. 교회당 예배안내,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제 1단계로 예배당과 온라인에서 드립니다. 단 주일 온라인 예배는 2부 (11시)에 있습니다.
2. 교회당 오후 1시 3부 예배 시작, 일시: 오늘부터. 내용: 1,2부 좌석 예약제 없이 친교실과 중고등부 예배실도 open.
3. '금요찬양집회'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4. 8월부터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실행 예배후 '비공개 전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엔, 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교회 방문 기도 시간, Open hours: 7am-6pm (월-금) 7am-2pm (토, 주일)
6. '만나와 메추라기' 서로 돕기사역, 대상자: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7. '매일성경' 큐티북 영어/한국어 (7-8월), 교회 강대상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1권값 \$5)
8. 성찬 주일 예배, 일시: 오늘
9. 작은 목자의 삶 5권 종강식, 일시: 오늘 예배중, (수업일정: 5.18일-7.27일), 대상자: 이지연, 이승희, 우은주, 김병희, 김원태, 이수연자매님. 인도자: 주영진장로님
10. 10번째, ANM Leader's retreat, 일시: 8월 8일 (토) 9am-1pm
11.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 일시: 오는 주일 (9일)
12. Back to School 특별 새벽기도회, 일시: 8/10-15 (월-토), 주제: '동행' (창 5:24절)
13. 온라인 심방, 심방요청이 있으면, 편한 시간대로 꼭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4. 팟캐스트 전도 (Podcasts 인터넷 방송 선교), 휴대폰 app에 'Spotify' 'Google Podcast' 'Apple Podcasts'를 설치하고 '윤명호목사' 혹은 'dongsan church'를 찾아 청취함.
15. "코로나 특별 섬김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아시면 꼭 섬김팀으로 연락 요망. 코로나 특별섬김팀: 장영식장로님(팀장) 201-741-4488, 홍인기집사님, 201-290-3968
16. 동산성경학교 (풍삼, 풍빛, 작목삼, 강사교육 및 각종 성경공부 안내), 코디네이터: 윤경화사모 (201-585-1985). 카톡으로 성경공부 sign up 해 주세요.
17. 온라인 Venmo 사용 현금 안내: 미국내에서 현금할 때에는 수수료가 없는 Venmo가 좋습니다. Venmo app을 휴대폰에서 찾아 설치한 후, 수신자란에 @Dongsanchurch 입력하고, 아래 오른쪽 하단에 "Public"을 눌러 'private'으로 변경한 후에, pay 합니다. 해외에서는 'paypal'을 이용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도록
- *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 *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단 허용법)이 의회상정되지 않도록
- * 동산 모든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 *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 * 당회 장로님들과 교구장/셀목자분들을 위해 기도.
- * 유치/유초등/중고등/EM 교역자들과 교회 모든 섬기는 스태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
- * 8월의 선교사, 이현호/이성덕선교사 (M국, 교회 개척사역)와 카박/이성숙선교사 (T국, 교회 개척사역)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12.12.1000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 * 123대가 함께하는 선교전진기지로 성전 건축 헌당이 2년안에 이루어지도록.
- * 캠페인의 자녀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 북한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2020년 8월 예배위원

주일	1부	2부	수요예배기도	강단 꽃	친교
8. 2	최봉호	정다니엘	8. 5 이정선	장영식	
8. 9	김중록	정우원	8. 12 박양금	조문식 정사라	
8. 16	김형모	장영식	8. 19 가옥란	김혜경	

2020년 3/4분기 행사일정

- * 광복절 감사 연합예배, 8.9일
- * Back to School 특새, 8.10-15일
- * Staff 기획회의, 8.29일
- * 노동절, 9.7일
- * '내 백성을 위로하라' 9.27일 (주일)
- * 사역박람회, 10.11일
- * 선교대회, 11.1-8일

주요모임안내

1. ANM(EM) 주일예배, 1:30pm Online
2. ANM(EM) 목요모임, 7:30pm Online
3. 유초등부 수요모임, 4:30pm, Online
4. 중고등부 수요모임, 7pm Online
5. KM/EM board meeting, 오늘 3pm
6. 당회, 8월 4일(화) 5pm, 교회 친교실
7. 전체 셀목자 모임, 오는 수요일, online



목회수상 (200802)

"가장 정의로운 법정"

(The most righteous and just court)

담임목사 윤명호

중세 유럽은, 무지로 얼룩진 맹목적인 신앙의 세계였고, 가난했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은 중국이었고, 아시아는 부와 풍요의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인들은, 모두 아시아로 가는 좀 더 나은 해로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였기에, 망망대해를 무작정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서양을 건너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면, 가까운 해안선을 따라, 저 먼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 타운을 지나, 한없이 뱅뱅 돌아서, 아시아 국가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스페인 국왕의 허락을 받아, 항해하여 드디어 1492년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용기와 인내, 도전 정신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여, 가난한 유럽을 부자 유럽으로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백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은 없을지 모르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공을 높이 기려서, 거의 미국 전역에 그의 동상을 세우고, 콜럼버스 데이를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지, 거의 5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미네소타, 보스턴, 볼티모어, 오하이오,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미국 전역에 세워진 콜럼버스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과정에서 토착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한 식민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역사적 재평가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는 1927년 세워진 콜럼버스 동상이 통째로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시위대는 밧줄로 동상을 끌어내리고 불붙인 성조기를 덮은 후, 호수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리 'black lives matter'라고해도 미국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동상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미국내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사람이 지은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콜럼버스 일행은, 원주민들을 노예화하고, 학살했습니다. 절망속에서, 원주민들 가운데 자식들과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콜럼버스 일행을 처음 만난 타이노 원주민들은, 한 때 그 수가 25만명에 달했으나, 2년 반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신대륙 발견 후, 100년이 지날 무렵엔 손으로 꼽을 인구만 남았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여, 많은 유럽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준 콜럼버스는 누군가에게는 동상을 세워 영원히 기릴 영웅일지 모르지만, 신대륙 인디언들에게, 콜럼버스는 재앙이었고 동상을 통째로 호수에 던져 넣어야 할 인종대학살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지난 500년간 콜럼버스의 악행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영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끝끝내 낱알이 드러내어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동상이 훼손되고, 목이 잘리고, 끌어내려져, 통째로 호수에 처박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때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힘을 가진 사람이 영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재력이나, 권세에 아무 상관없이 '가장 공정하게 사람이 심은대로 거두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콜럼버스 동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